

자녀 새 학년 입학 앞둔 학부모에 교육과정 안내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초·중·고 예비 학부모 교육 올해 고교 학부모까지 확대… 내달까지 14개 시군서 교육정책·고교학점제 등 안내… 현장 교원이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26학년도 초·중·고 예비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자녀의 새 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정확하게 안내해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학 전 학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올해는 고등학교 예비 학부모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운영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와 학업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집은 도내 초·중·고 현직 교사들이 직접 참여했다. 강의 역시 교원들이 직접 맡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18일 부안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학교생활 준비 △교육과정 이해 △학교폭력 예방 △고교학점제 △전북교육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역별 자세한 교육 일정과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예비 학부모 교육은 자녀의 첫 학교생활을 부모가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부모가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의 동반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장학재단은 17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도내 난치병 학생 50명에게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교육장학재단 제공)

“난치병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토록 지속 지원”

전북교육장학재단, 50명에 5000만원 장학금 전달

전북교육장학재단은 17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도내 난치병 학생 50명에게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장학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교원들이 2001년 설립, 현재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1만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10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긴급지원, 희귀 난치병 치료비

전북교육청, 에듀버스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에듀버스 운영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지난주 첫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듀버스는 방과후활동, 방학 중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각종 현장·체험학습, 중학교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 관용차량으로, 2014년부터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대씩 배치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구성은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접수된 에듀버스 운영 활성화 관련 정책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육청운전직연합회 추천 교원, 전·현직 통학버스 업무담당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교육지원청별 에듀버스 운영 실태 분석 및 타시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에듀버스 운영 활성화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신청시기 및 방법, 지원 대상, 운행범위, 운행요일, 유류비 지급 기준 등이 담겼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3학기 한국어학당 수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은 최근 스타센터에서 3학기 한국어학당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한국어학당은 2025학년도 3학기부터 새롭게 모집을 시작해 베트남·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를 함께 높여왔다. 연중 4학기제로 운영되며, 단계별 맞춤 교육과 체계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 생활과 사회문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총 2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학생대표의 소감 발표와 성적 우수상 시상, 축하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어 교원과 국제교류원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 수료생들의 성장을 축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대 한국어학당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소통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더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제주관광대와 협약

전주기전대학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제주관광대학 RISE사업단(단장 정예선)과 RISE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제주 권역의 RISE 사업을 연계해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Luncation)' 기반의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참여대학의 강점을 살린 교육과정 공동 개발·교류,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관련 공동사업 발굴, 성인학습자 런케이션 프로그램 연계 운영, 인적·물적 교육자원 교류, 특화 비교과 공동 운영, 성과 공유 및 자문(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기로 했다. 또한 자연친화적 학습 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성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몰입도를 높이고, 현장성·융복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AI 기반 농생명 혁신전략 모색

전북대-농진청, 오늘 '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포럼'

'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포럼'이 1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대학·연구기관·지자체·산업체의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 현장에서의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 활용성과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양오봉 총장이 환영사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맡아 농업·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향한 지역과 국가의 의지를 공유한다.

이후 진행되는 발표 세션에서는 △'전북 피지컬 AI 사업의 방향'(전북대 김순태 교수) △'농업 AX(AI Transformation) 전략 및 협력 방안'(농촌진흥청 이충근 과장) △'피지컬 AI 농생명 적용사례'(전북대 양명균 교수) △'산업과 사예 발표'(한국피지컬 AI협회 유대준 회장) 등 최신 기술 동향과 실용 사례가 잇따라 소개된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대학, 정부기관, 지자체, 산업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연구·산업·정책 간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심층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장은성 기자

지역 신산업 IP 생태계 조성 전략 논의

전북대, 18~19일 지식재산·바이오 IP 연속 포럼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8~19일 이틀간 지식재산·사이버보안·바이오 의생명 분야를 아우르는 연속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송철규)과 대학혁신사업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기술 보호, 창업 기반 확충, 지역 신산업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과 세미나실에서 '2025 바이오 의생명 IP 브릿지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는 지식재산 기반의 의료·바이오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함께 지식재산(IP) 사업단 소개, 바이오 의생명 분야 협력 방안, 의사와 학자 특허 전략, 의료분야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그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IP사업단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기술출원·관리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고명환 교수(의대)의 혁신형 미래의료

연구센터 소개, 강승록 연구교수의 전북대병원 의사과학자 특화 소개 및 바이오 의료분야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에 대한 강연도 펼쳐진다. 이어 19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 2층 글로벌홀에서 '2025 지식재산과 사이버보안 강화 포럼'이 개최된다. AI·로봇·첨단소재 등 신산업에서 기술유출·산업보안 중요성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IP 보호와 사이버보안 대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이버 위협 동향과 대응활동(전 국가정보원 전문가)과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국가안전보장연구소 연구원·중앙대) 등의 특강이 마련된다. 또한 '지·산·학 동반성장을 위한 창업 IP 브릿지 세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전략 △지식재산협력사업단 사업 모델 등이 발표된다. 토론회에서는 전 국가정보원 참매대 응터장, 중앙대 교수, 산업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 참매사례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기록관리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박병춘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는 교육대학으로서의 비전과 일치하는 수준 높은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소중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교육적 가치를 더욱 높여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전북 초등 어휘력 대회(본선)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평소 어휘사전으로 공부한 내용 퀴즈로 나와 뿌듯… 흥미진진”

전북 초등 어휘력 대회… 김제초 김강우 '금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전북 초등 어휘력 대회(본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선 대회에는 지역 대회를 통해 선발된 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제작·보급된 '초등어휘사전 1600(이하 어휘사전)'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이 문항을 출제했다. OX퀴즈·끝단벨·주제 선택 퀴즈 등의 단계로 진행, △올바른 예문 진위 판단하기 △어휘의 관련 어 연결하기 △주제에 어울리는 어휘쓰기 △교과간 융합어휘 활용하기 등을 통해 단어의 뜻과 관계,



'걸으며 만나는 전주전' 전북교육청 생태역사탐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생태역사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걸으며 만나는 전주전, 자연과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기후행동 실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가족 340여 명이 참여했다. 생태역사탐방은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전당(요안 루갈다 광장)을 베이스캠프로 전주천변길 일대에서 걷기와 친환경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1코스 바람쐬는길은 '치명자산광장 → 바람쐬는길 → 원색명화마을 → 색장들 천변길 → 천리길 우체통 → 각시바위 → 치명자산 광장'이다. 2코스 전주천변길은 '치명자산광장 → 전주 자연생태관 → 전주 천길(동로) → 남부시장 천변길 징검다리 → 전주천길(서로) → 오목교 → 한벽문화관 → 한벽굴 → 치명자산 광장'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전주천 생태환경과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코스별 미션수행 및 플로깅 활동을 통해 생활 속 ESG 실천에 동참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